

DDA, 2007년 3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2007년이 시작될 무렵 회원국들은 올해 1분기 중에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국의 신속협상공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6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미국 행정부가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의회에 제시하여야 TPA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미 사무총장은 협상 일정이 미국의 TPA 연장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협상의 주축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DDA 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개국을 따로 만나 DDA 협상에 관해 논의하는 등 합의점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나 올 여름 휴가기간 전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을 경우 DDA 협상의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질 것이다.

1.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3월 9일, 펠코너 농업위 특별회의 의장은 비공식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전체 회원국들에게 그간의 협상 동향과 4월에 의장이 새로운 참고문서를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 참고문서는 DDA 협상이 보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5~6월 경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몇몇 회원국들은 이 회의에서 협상이 다자 차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주는 그동안 가졌던 양자협상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AMS와 블루박스를 묶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과 EU는 여러 차례 양자 접촉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G10은 EU 및 케언즈 그룹과 각각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케언즈 그룹은 이 회의에서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 쟁점인 민감품목과 열대작물 관련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호주는 케언즈 그룹을 대표해 민감품목 제안서를 배포하면서 이 제안서의 목적은 민감품목의 선정과 대우에 대해 회원국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호주는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민감품목의 수와 TRQ 증량폭 및 관세 감축폭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케언즈 그룹은 제안서에서 민감품목의 TRQ 증량 방식에 대해 두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케언즈 그룹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폭이 일반 관세감축 공식에서 멀어질수록 TRQ 증량폭은 커져야 하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TRQ 증량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폭을 작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케언즈 그룹의 제안서에서는 TRQ 증량이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자가소비량을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도 관세상한을 설정하되 최대한의 수준으로 TRQ를 증량할 경우에는 관세상한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은 TRQ 증량 기준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수

용하여 기존 제안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케언즈 그룹의 제안서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G10은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관세상한이나 국내 소비량을 TRQ 증량 기준으로 적용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국내 소비량을 TRQ 증량 기준으로 적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고, EU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주요 4개국 회의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개국의 통상장관들은 3월 초 런던에서 양자협상을 가지고 DDA 협상의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3월 3일에는 EU와 인도가, 3월 4일에는 미국과 EU, 동일 미국과 인도, 3월 5일에는 미국과 브라질, 아프리카 그룹이, 동일 브라질과 인도가 양자협상을 가지는 등 연속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으며 양자협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어, 협상의 투명성 문제가 향후 제네바 차원에서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chicken.ca/DefaultSite/index_e.aspx?DetailID=43(Geneva Watch Vol. 7, Issue no.8 & Issue no.9) 발췌정리